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배 , 거래한도 20%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를 명분으로 지난 5월 도입되었지만, 최근 증시 급락 및 유동성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금융당국이 보완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01	기본예탁금 3,000만 원 현행 1,000만 원에서 상향·전액 현금 납입
02	신규 출시 중단 · 광고 금지 시장 안정 시까지 신규 출시 잠정 중단, 광고 전면 금지.
03	개인별 투자한도 20% 추진 투자 총량 20% 이내 제한 구체화, 자본시장법 개정 병행.

출시에서 규제 강화까지

- 2026.05.27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국내 출시, 금융위원회 투자 유의사항 안내
- 2026.07.16 재정경제부 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신규 출시 중단·예탁금 상향 등 첫 보완방안 발표
- 2026.07.24 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7월 31일 조기 시행 확정 발표
- 2026.07.29 정부, 개인별 투자 총량 20% 이내 제한 방안 발표
- 2026.07.30 금융투자협회, 리밸런싱 거래 분산·투자한도 도입 등 자율 시장 안정 조치 발표
- 2026.07.31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전액 현금 납입) 시행

다음 단계

NEXT MILESTONE

수요 진정 여부를 점검해 개인별 투자한도 제한의 시행 시기를 정하고, 신속 안정화 조치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기 추진될 예정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투자 요건 REQUIREMENTS

기본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
전액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위험 교육은 2시간에서 3시간, 최소 매매수량은 1좌에
서 20좌로 늘어납니다.

공급과 운용 SUPPLY

신규 상품 출시는 시장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되고 광
고는 전면 금지됩니다.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
리 의무와 위반 시 제재도 강화됩니다.

3,000만 원

- 7월 31일 시행
- 기본예탁금 현행 1,000만 원의 3배 상향
- 전액 현금 납입

예고된 추가 조치

투자한도
총량 20% 이내

투자요건
추가 상향 검토

자본시장법
신속 안정화 근거

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

- 01
 - 예탁금 3,000만 원·전액 현금 요건 반영, 계좌 시스템 점검
 - 신규 거래 취급 절차와 투자자 안내 정비
- 02
 - 리밸런싱 거래를 장종으로 분산하는 운용 방식 마련
 - 유동성 적정 공급과 괴리율 관리 체계 점검
- 03
 - 투자한도 20%·자본시장법 개정 일정 모니터링
 - 한도 관리 등 전산 대응 준비 병행

남은 쟁점

급락 원인을 두고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 청산을 지목하는 시각과 반도체 업황 등 복합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입법정책의 변화,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

— ISSUE TRACKING

— POLICY INSIGHT

— CUSTOM REPORT

로섹션 입법정책 모니터링

LAWSECTION.AI.KR

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